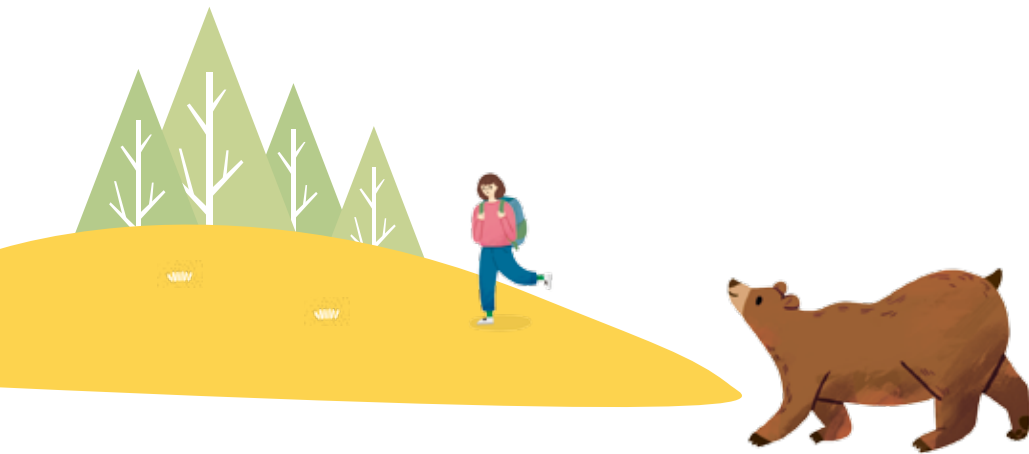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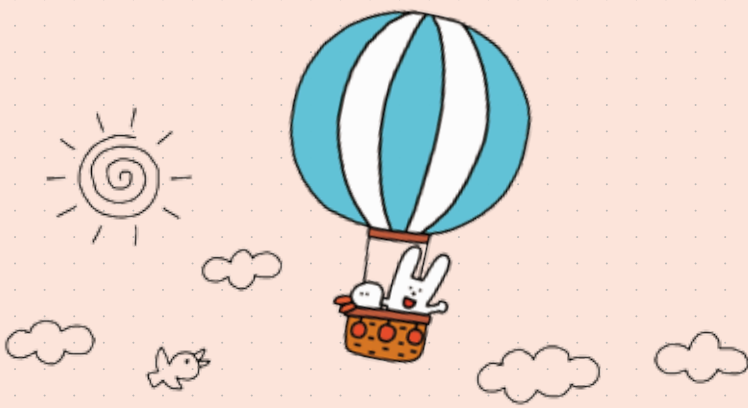


중학교

국어 2-2

신유식
정미선
이필규
김영찬
전경원
윤인희
박선주
김정희
이은화
나단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듣고 말하고 읽고 씁니다.
이처럼 말과 글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것이면서, 생각을 키우고, 사람과 사귀고, 사회를 유지하고,
문화를 가꾸어 가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는 이러한 우리말, 우리글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국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생각을 키우고, 표현하고, 아울러 자신의 세계를 가꿀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말과 우리글을
여러분이 잘 익힐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여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이끌어낼까?”
- “이 활동이 재미있으면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까?”
- “핵심 개념과 원리를 잘 익히면서도 꼭 알아야 할 것만 담아낼 수는 없을까?”
- “어떻게 하면 배우는 과정도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서로 도우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 교과서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학교 선생님, 그리고 우수한 전문 편집진이
온 힘을 다해 만든 책입니다.

아무쪼록 이 교과서를 발판으로 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힘이 무럭무럭 자라고
국어를 통해 보는 세상이 더욱 재미있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모두가



이 책의 차례

1 함께 보아요 문학

- (1) 함께 읽고 감상하기 12쪽
 놀부전_류일윤 / 흥부전_작자미상
- (2) 한 권 읽고 재구성하기 30쪽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_바버라오코너
- **창의·융합 활동** - 관객과의 대화 58쪽
- **교실 밖 국어 체험** - 문학에서 피어난 그림,
 그림에서 피어난 문학 62쪽

2 효과적인 의사소통 문법 듣기·말하기


-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66쪽
- (2) 의미를 나누는 대화 82쪽
 달같은 달같은 값으렴_박완서
- **창의·융합 활동** - 듣기·말하기 관련 속담 사전 만들기 ... 104쪽
- **교실 밖 국어 체험** -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담화 108쪽



3 알기 쉽게 설명하기 읽기 쓰기

- (1)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112쪽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명옥
- (2) 설명하는 글 쓰기 132쪽
 - **창의·융합 활동** - 공공 예절 픽토그램 만들기 146쪽
 - **교실 밖 국어 체험** - 일상에서 만나는 설명하는 직업 ... 150쪽

4 올바른 국어 생활 문법 읽기

-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154쪽
- (2) 매체 바르게 읽기 172쪽
 - **창의·융합 활동** - 카드 뉴스 만들기 190쪽
 - **교실 밖 국어 체험** - 우리말 누리집 소개 194쪽
-  **부록** 1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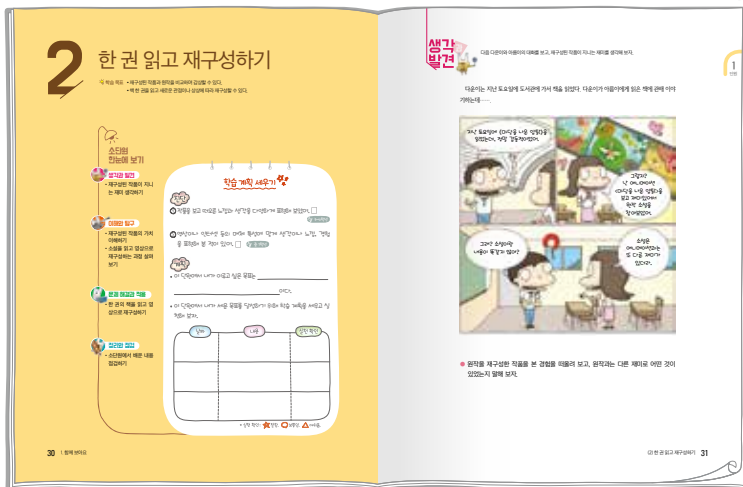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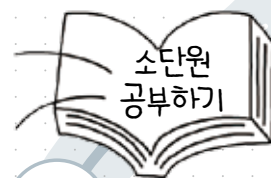


이 책의 구성



대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둘러보고, 학습 목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단원
들어가기



소단원을 공부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학습 목표에 다가갈 수 있어요. 각 소단원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의 영역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보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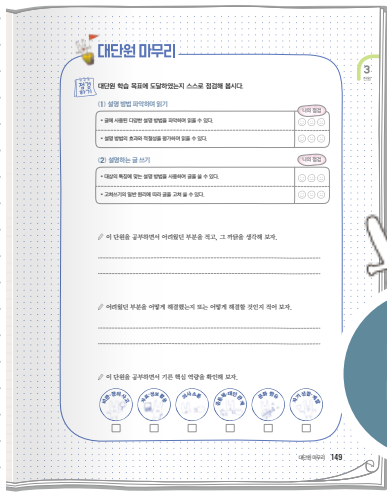
생각과 발견

작품 읽기

이해와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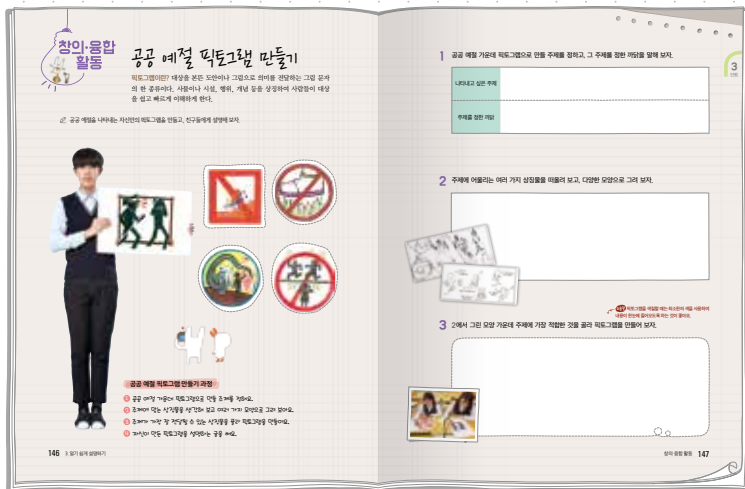
문제 해결과 적용

정리와 점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되는 다양한 생활화 자료들을 볼 수 있어요.

대단원 목표에 도달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대단원을 공부하면서 익힌 내용과 다양한 영역의 교과를 융합하여 수행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역량'을 길러요.



상황, 자료, 담화, 글을 주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들 줄 알아요.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말과 글,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이해하고 자신과 남과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할 수 있어요.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도우면서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요.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고 생산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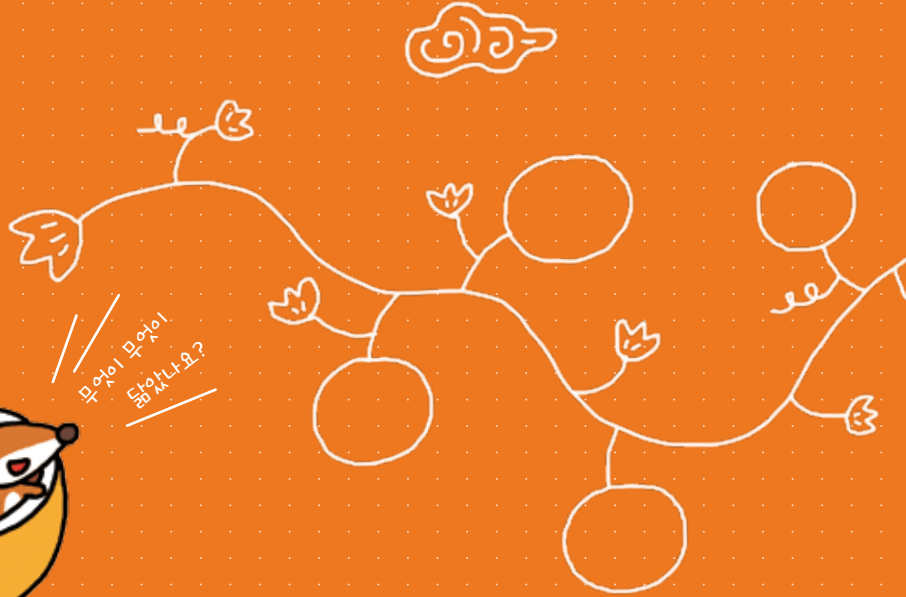


삶의 가치를 찾고 의미를 새기며,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1



무엇이 무엇이
있었나요?



함께 보아요

문학





이야기의 흐름과
소재가 담겼지요.



(1) 함께 읽고 감상하기 (2) 한 권 읽고 재구성하기

무엇이 무엇이
다른가요?

재미와 표현,
내용이 달라져요.



대단원 학습 목표

-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고, 변화 양상을 파악하며 감상할 수 있다.
- 책 한 권을 읽고 새로운 관점이나 상상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작가는 기존에 있던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을 달리 하여 새로운 문학 작품을 창작하기도 해요. 소설 속 인물의 성격을 바꾸기도 하고, 소설을 영화로 만들기도 하지요.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해 보고, 무엇이 달라졌으며, 왜 그렇게 바꾸었는지 생각해 보면 작품을 재미있고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어요.

이 단원에서는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며 감상할 거예요. 그리고 책 한 권을 읽고 재구성하는 활동도 해 볼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문학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어요.

1

함께 읽고 감상하기

- ☀ 학습 목표 •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고, 변화 양상을 파악하며 감상할 수 있다.
- 작품을 읽고 새로운 관점이나 상상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소단원 한눈에 보기



생각과 발견

-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함께 감상했던 경험 떠올리기



이해와 탐구

- 고전 소설을 재구성한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며 감상하기
- 원작이 꾸준히 재창작 되는 까닭 알기



문제 해결과 적용

- 소설을 재구성한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며 감상하기
- 원작을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하기



정리와 점검

- 소단원에서 배운 내용 점검하기

학습 계획 세우기

진단

- ① 이야기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해 보았어. 상 3~4학년
- ② 작품을 감상하고 관련된 내용을 찾아본 적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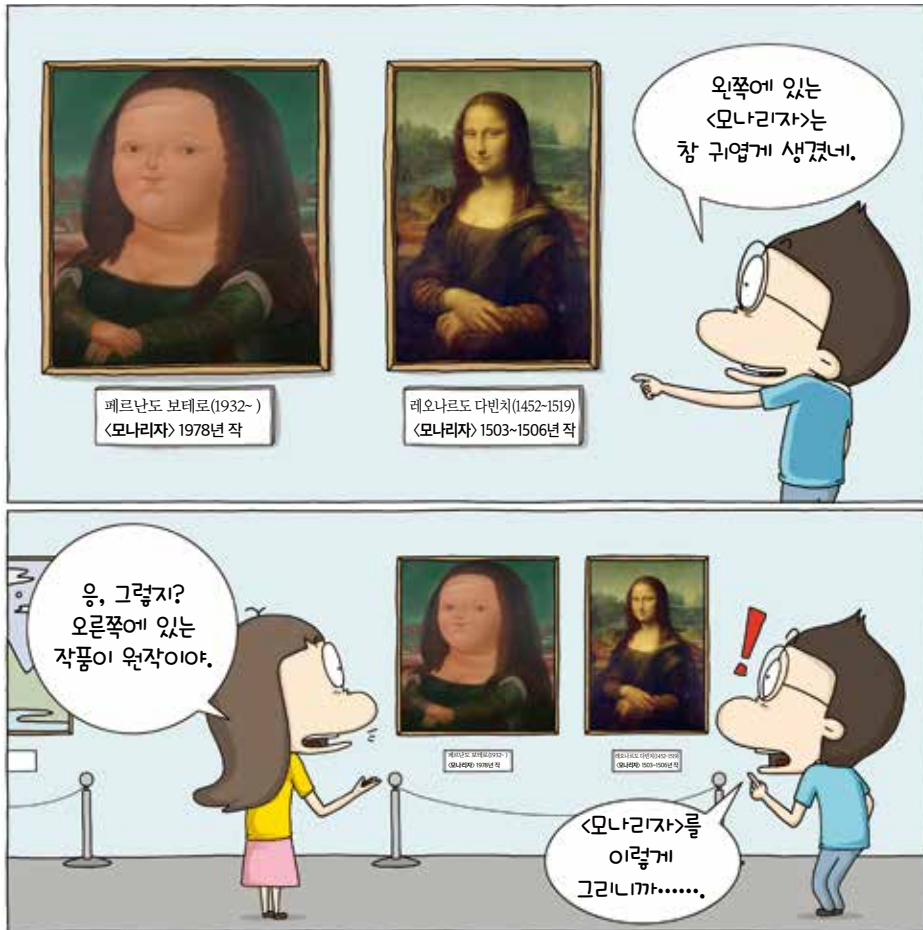
계획

- 이 단원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_____ 이다.
- 이 단원에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자.

날짜	내용	실천 확인

* 실천 확인: ☆ 잘함. ○ 보통임. △ 아쉬움.

평소 미술 작품에 관심이 많은 강산이와 아름이는 함께 미술관에 갔다. 그곳에서 나란히 있는 두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 1 두 그림을 비교하며 감상해 보고,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 2 재구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원작을 찾아보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놀부전

류일윤(1965~)



옛날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어요. 흥부는 집도 가난하고 일도 잘 못했지요. 매번 놀부를 찾아와 도움만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부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 이제 흥부네 가족이 찾아오면 절대 도와주지 마시오.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도와주니까 의지만 하고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구려.”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당신은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마음이 아파도 냉정하게 대하십시오.”

그때 흥부가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내와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네 가족은 내가 책임져라. 내가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도 시키란 말이다.”

“형님, 다시는 손 벌리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까먹고 또 내가 얼마나 도와주었느냐? 이제부터 너와 나는 형제도 아니니 썩 물러가거라.”

놀부는 흥부를 계속 나무랐어요. 결국 흥부는 쌀 한 톨도 받지 못하고 놀부네 집에서 쫓겨났지요.

‘형님은 정말 너무해. 형님이 나보다 재산도 더 많이 물려받았잖아. 그리고 형님은 부자잖아. 가난한 동생을 좀 도와주면 어때! 쳇, 어디 두고 봐. 꼭 보란 듯이 성공하고 말 거야. 그때는 내가 형님을 모른 체할 거야.’

📍 놀부가 모질게 말하며 흥부를 쫓아낸 까닭은 무엇일까?

• 까먹다: 실속 없이 써 버리다.





‘무엇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지? 무엇을 해야
보란 듯이 성공할 수 있을까? 농사를 짓자니 물려받은
논밭을 이미 다 팔았고, 장사를 하자니 밀천이 없고, 품
삿을 받고 남의 집 일을 하자니 양반 체면이 말이 아
5 난데…….’

홍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돈벌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바깥에
서 소리가 들렸어요.

“주인장, 계시오?”

홍부가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10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누구시오?”

“나는 바가지 장수올시다. 당신 지붕 위에 열린 박이 하도 탐스러워서 말이
오. 저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어 내게 팔지 않겠소? 값을 후하게 쳐 드리
리다.”

“아무렴, 팔고말고요!”

15 홍부네 가족은 얼른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가지를 팔아
서 많은 돈을 벌었지요.

• 밀천: 어떤 일을 하는 데 바탕
이 되는 돈이나 물건, 기술, 재
주 따위를 이르는 말.

“여보, 우리도 이제 쌀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게 말이오. 이 돈들 좀 보시오. 우린 이제 잘살 수 있소!”

그 후 흥부네 가족은 여기저기 구덩이를 파서 똥을 붓고 박씨를 많이 심었어요. 다음 해, 큼직한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흥부는 박을 전부 타서 열심히 바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바가지 장수로 나섰지요. 흥부가 만든 바가지는 불티나게 팔렸어요. ‘흥부 표’ 바가지는 곧 온 나라에 유명해졌답니다. 그래서 흥부네 가족은 큰 부자가 되었지요.

부자가 된 흥부는 자기 집 곳간을 들여다보았어요.

‘이만하면 내가 형님보다 더 부자겠지. 형님 집에 가서 누가 더 부자인지 가려봐야겠다!’

흥부는 놀부 집으로 달려가 몰래 곳간을 열어 봤어요. 그런데 곳간에 곡식은 없고 바가지만 가득했지요. 바로 흥부가 바가지 장수에게 팔았던 바가지였어요.

❓ 놀부네 집 곳간을 열어 본 흥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 형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구나.’

흥부는 그제야 놀부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흥부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형님, 이 못난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형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지금껏 형님만 원망하며 살았어요.”

“아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뒤 흥부와 놀부는 더욱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흥부전

작자 미상

앞부분의 줄거리

전라도 운봉과 경상도 함양 땅 어름에 형제가 살았다. 형 놀부는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고, 동생 흥부는 형과 달리 마음이 착하고 행실이 남달랐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괜히 생트집을 잡아 불호령을 내리며 흥부를 쫓아냈다. 부모님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내쫓긴 흥부는 어렵게 생계를 꾸려 간다.

그래도 집이라고 명석자리 거적문에 지푸라기를 이불 삼아 춘하추동 사시절을 지낼 적에, 따로 먹고살 도리가 없으니 무엇이 되었든 손에 잡히는 대로 품을 팔아서 끼니를 이었다.

흥부가 품을 파는데 상하 전담 김매고, 전세 대동 방아 찧기, 보부상단 샅 짐 지고, 초상난 집 부고 전하기, 묵은 집에 토담 쌓고, 새집에 땅 돋우고, 대장간 풀무 불기, 십 리 길 가마 메고, 오 푼 받고 말편자 걸기, 두 푼 받고 똥재 치고, 닛 냥 받고 송장 치기. 생전 못 해 보던 일로 이렇듯 별기는 버는데 하루 품을 팔면 네댓새씩 앓고 나니 생계가 막막했다. 할 수 없이 흥부 아내가 또 품을 파는데, 오뉴월 발매기와 구시월에 김장하기, 한 말 받고 벼 훑기와 물레질 베 짜기며, 빨래질 헌 옷 깎기, 혼인 장례에 굶은일 하기, 채소밭에 오줌 주기, 갓은 길쌈과 장 달이기, 물방아 쌀 까불기, 보리 갈 때 거름 놓기, 못자리 때 잡풀 뜯기. 아기 낳고 첫 국밥을 손수 지어 먹은 뒤에 몸조리 대신 하여 절구질로 땀을 내고. 한시 반때도 놀지 않고 이렇듯 품을 파는 데도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할 지경이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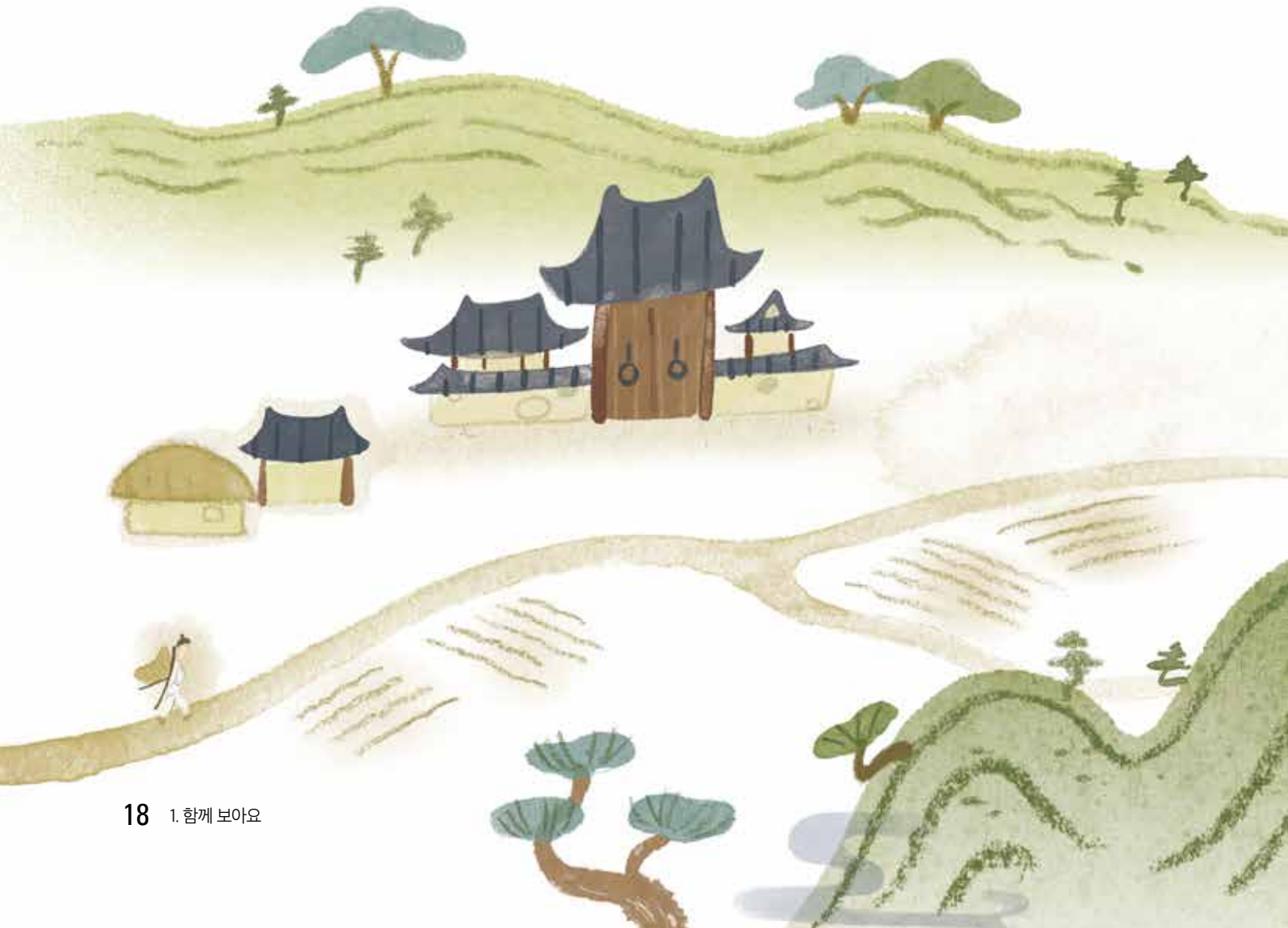
흥부와 흥부 아내는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갔는가?

- 생트집: 아무 까닭이 없이 트집을 잡음. 또는 그 트집.
- 사시절(四時節): 사철.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철.
- 전세 대동: 세금을 특산물 대신 쌀로 통일해서 걷기 시작한 조선 중·후기의 조세 제도인 대동법을 이룸.
- 보부상(保負商): 붓짐장수와 등짐장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부고(訃告): 사람의 죽음을 알림. 또는 그런 글.
- 똥재: 똥오줌에 재를 섞어 만든 거름.
- 생계: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
- 까불다: '까부르다'의 준말. 키를 위아래로 흔들며 곡식의 티나 검불 따위를 날려 버리다.
- 못자리: 법씨를 뿌리어 모를 기르는 곳.

“어따 이놈 흥부 놈아! 하늘이 사람 낼 때 제각기 정한 분수가 있어서 잘난
 놈은 부자 되고 못난 놈은 가난한데 내가 이리 잘사는 게 네 복을 뺏었느냐?
 누구한테 떼쓰자고 이 흥년에 곡식을 달라느냐? 목멘 소리 내어 눈물방울
 이나 찍어 내면 네 잔피에 내가 속을 줄 알고!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쌀 한
 말이나 주자 한들 대청 큰 뉘주에 가득가득 들었으니 네놈 주자고 뉘주 헐
 며, 벼 한 말을 주자 한들 곳간 노적가리 태산같이 쌓였는데 네놈 주자고
 노적가리를 험단 말이나? 돈냥을 주자 한들 께짝에 가득가득 들었으니 네놈
 주자고 돈 꾸러미를 헐며, 싸라기나 주자 한들 황계 백계 수백 마리가 밥
 달라고 꼬꼬 우니 네놈 주자고 닭 굶기며, 지게미나 쌀겨나 양단간에 주자
 한들 우리 안에 돼지 떼가 꿀꿀대니 네놈 주자고 돼지 굶기며, 식은 밥이나
 주자 한들 새끼 낳은 암개들이 경경 짓고 내달으니 네놈 주자고 개를 굶긴단
 말이나?”

📍 놀부는 흥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대청: 한옥에서, 몸체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
- 뉘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 노적가리: 한데에 수북이 쌓아 둔 곡식 더미.
- 싸라기: 부스러진 쌀알.
- 지게미: 재강에 물을 타서 모주를 짜내고 남은 찌꺼기.
- 양단간(兩端間): (주로 '양단' 간에 꼴로 쓰여)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두 가지 가운데.



놀부는 말을 마치자마자 몽둥이를 들어 메더니 좁은 골에 벼락 치듯 후닥닥
똑딱 동생을 두드려 패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 급살 맞아 죽을 놈아, 어째 나를 못살게 왔느냐!”

5 후닥닥!

“아이고!”

흥부가 도망을 하려 한들 대문을 닫아걸어 놓은 터라 날지도 뛰지도 못하고
그저 퍽퍽 맞을 뿐이었다.

뒷부분의 줄거리

10 흥부네 집 처마에 제비 한 쌍이 새끼를 낳아 기르는데, 구렁이를 피하려다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다. 흥부는 다친 제비를 정성껏 치료해 준다. 그 인연으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고
그것이 잘 자라 큰 박이 된다. 흥부가 박을 타자 그 속에서 재물이 나와 큰 부자가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치료해 준다. 놀부도 박씨를
얻어 박을 키웠지만, 박을 타서 오히려 벌을 받고 재산을 모두 빼앗긴다. 흥부는 형을 위로하고 재
15 산을 나누어 주며 우애롭게 지낸다.

창의 질문

이 글을 읽고 친구들에게 하고 싶
은 질문을 만들어 보자.

예 흥부와 흥부 아내가 품을 파는
모습을 오늘날 있는 일들로 바꾸어
보면 무엇이 있을까?

-
-
-



1 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원작인 <흥부전>과 재구성된 작품인 <놀부전>을 비교해 보자.

(1)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

	<흥부전>	<놀부전>
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이 좁다. •
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술궂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혜롭다. •

(2) <놀부전>에서 흥부와 놀부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자.


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디 두고 봐. 꼭 보란 듯이 성공하고 말 거야. 그때는 내가 형님을 모른 체할 거야.’ • •
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당신은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마음이 아파도 냉정하게 대하시오.” • •

이끼

<놀부전>의 작가가 한 새로운 상상이나 관점을 생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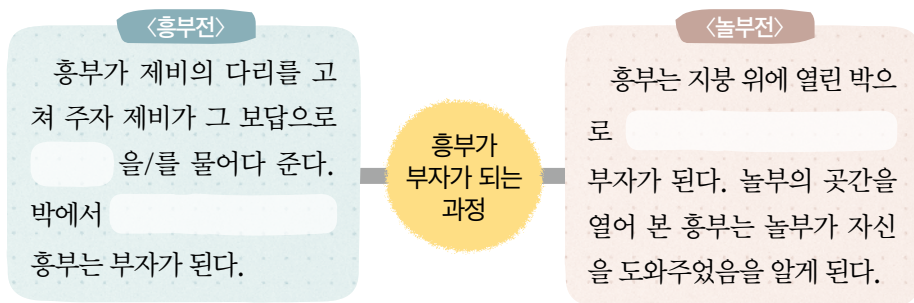
(3) <놀부전>의 작가가 인물의 성격을 바꾼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현대 사회에서 보면 놀부가 나쁜 사람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




2 흥부가 부자가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흥부전>과 <놀부전>의 주요 사건을 비교해 보자.

(1) 두 작품에서 흥부가 부자가 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자.



(2) 두 작품에서 흥부가 부자가 된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예 <흥부전>은 박에서 재물이 나와서 부자가 되는 것이 비현실적이야.



나

이에 비해 <놀부전>은 _____

이끌기
 <놀부전>의 작가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와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3) 다음 작가의 말을 참고하여 사건을 재구성한 의도가 무엇일지 말해 보자.

조선 후기에는 소수의 지주는 놀부처럼 부자가 되고, 대부분의 소작농은 흥부처럼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해졌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가난한 흥부가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을까?

-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이끌기

㉠은 <흥부전>이고, ㉡는 <놀부전>이에요. 두 작품을 소리 내어 읽으며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세요.

3 놀부가 흥부를 쫓아내는 장면을 중심으로, ㉠과 ㉡의 표현을 비교해 보자.

㉠ “어따 이놈 흥부 놈아! 하늘이 사람 낼 때 제각기 정한 분수가 있어서 잘난 놈은 부자 되고 못난 놈은 가난한데 내가 이리 잘사는 게 네 복을 뺏었느냐? 누구한테 떼쓰자고 이 흥년에 곡식을 달라느냐? 목멘 소리 내어 눈물방울이나 짙어 내면 네 잔피에 내가 속을 줄 알고!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쌀 한 말이나 주자 한들 대청 큰 뉘주에 가득가득 들었으니 네놈 주자고 뉘주 혈며, 벼 한 말을 주자 한들 곳간 노적가리 태산같이 쌓였는데 네놈 주자고 노적가리를 한 단 말이나?”

㉡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내와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네 가족은 네가 책임져라. 네가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도 시키란 말이다.”
 “형님, 다시는 손 벌리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까먹고 또 내가 얼마나 도와주었느냐? 이제부터 너와 나는 형제도 아니니 썩 물러가거라.”

(1) 놀부가 흥부를 쫓아내는 장면을 중심으로 표현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이 길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이 짧다. •

이끌기

㉠과 ㉡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글인지 생각해 보세요.

(2) ㉠의 장면을 ㉡와 같이 표현한 까닭을 말해 보자.

이끌기

〈흥부전〉이 재창작되면서
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일
지 생각해 보세요.

4 오늘날에도 〈흥부전〉이 끊임없이 재창작되는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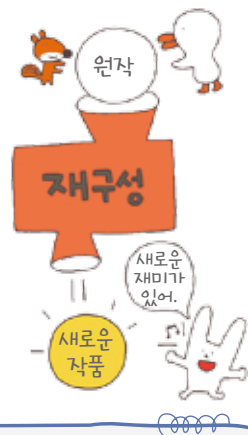
▲ 뮤지컬



▲ 놀이극



▲ 책



알아두기

- **문학 작품 재구성의 뜻**
원작의 내용이나 표현, 형식, 맥락, 매체 등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작품으로 창작하는 것
-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며 감상하는 방법**
 - 재구성된 작품이 원작과 비교하여 내용, 표현, 형식 등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파악하기
 - 원작을 재구성하는 데 바탕이 된 작가의 새로운 관점이나 상상 이해하기
 -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각각 있는 그대로 감상하고 작품이 담고 있는 가치 생각하기
-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며 감상할 때의 효과**
 - 새로운 상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
 -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음.
 - 비판적·창의적 관점을 기를 수 있음.

문제해결과 적용



1

생활 속에서 다음 노래를 듣고, 원작을 찾아서 비교하며 감상해 보자. ><

이끌기

노랫말과 분위기를 느끼며 노래를 감상해 보세요.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 모자 씌워 주고과.

넷가에 고무신 벗어 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노을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 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 예민 작사노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에서



(1) 이 노래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2) 이 노래를 듣고 떠오르는 작품을 말해 보자.



이끌기

이 노래는 작가가 소설 <소나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해요. 소설을 재구성하며 내용이나 표현, 형식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세요.

“이 노래는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 등장하는 ‘징검다리’와 ‘기다림’ 등의 모티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 **마장:** 거리의 단위. 오 리나 십리가 못 되는 거리를 이른다.
- **우대:** 위쪽.
- **벌:**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

(3) 소설 <소나기>를 찾아 이 노래와 비교하며 감상해 보자.

감상 기준

- 이 노래의 내용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가?
- 소설이 노래로 재구성되면서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 토요일이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모르는 체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 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애.”
 못 들은 체했다. 독 위로 올라섰다.
 “애,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비단 조개.”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삼 마장쯤, 소년은 우대로 한 십 리 가까이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 본 일 있니?”
 벌 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 보지 않을래?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 봐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겠니?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
 - 황순원, <소나기>에서

이끌기

작가가 담고자 한 가치 또는 이 노래가 지닌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4) 이 노래를 만든 작가의 새로운 상상이나 이 노래의 가치를 말해 보자.

- 이 노래에서는 소녀를 기다리는 소년의 마음을 꽃 모자로 표현하고 있어.
-



🔍 이끌기

〈흥부전〉에서 반영하고 싶은 가치를 생각하며 노래나 소설, 만화 등 다양한 갈래로 재구성해볼 수 있어요.

2 원작 〈흥부전〉을 바탕으로 하여 나만의 〈흥부전〉을 써 보자.

(1) 〈흥부전〉을 어떤 이야기로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 이끌기

〈흥부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상상을 더해 보세요.

(2) (1)에서 정한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지 계획을 세워 보자.

〈흥부전〉 재구성 계획서

제목	
등장인물	
간단한 줄거리	
중심 사건	



1 <놀부전>과 <흥부전>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맞는 말은 ○에, 틀린 말은 ×에 표시해 보자.

- (1) <놀부전>의 놀부는 흥부 몰래 흥부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
- (2) <흥부전>의 흥부는 생계를 이어 나갈 걱정만 할 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 ×)
- (3) <흥부전>과 <놀부전> 두 작품은 모두 형제가 화해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 (○, ×)

2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 (1) 원작의 내용이나 표현, 형식, 맥락, 매체 등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작품으로 창작하는 것을 _____ (이)라고 한다.
- (2)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여 감상할 때는 _____, 형식, _____ 등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파악해야 한다.
- (3) 재구성된 작품을 감상할 때는 원작을 재구성하는 데 바탕이 된 작가의 새로운 _____ (이)나 _____ 을/를 이해한다.

나도 선생님

• 재구성된 작품을 읽은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 작품에 드러난 다음 요소를 짝에게 설명해 보자. 그리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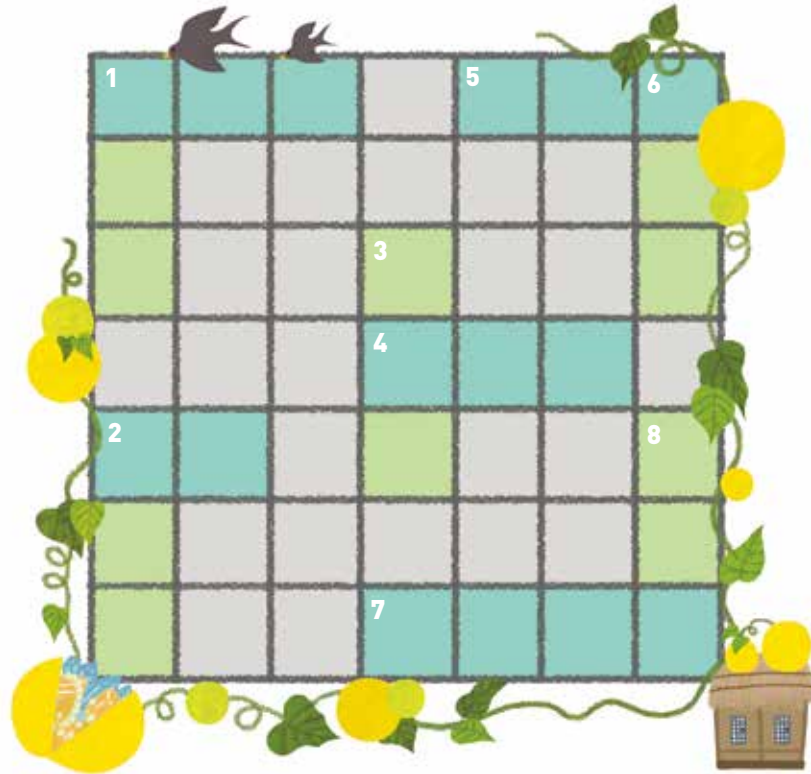
상상

가치

관점

설명한 내용과 방법	짝	나
• 단어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나요?	☆☆☆☆☆	☆☆☆☆☆
• 구체적인 작품을 적절하게 예로 들었나요?	☆☆☆☆☆	☆☆☆☆☆
• 설명한 내용에 공감할 수 있었나요?	☆☆☆☆☆	☆☆☆☆☆

- 십자말 풀이를 하며 이 단원에서 배운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



가로 열쇠

세로 열쇠

- 1 여럿 가운데 선택하거나 판단하여 결정하다.
- 2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
- 4 몹시 심하게 하는 꾸지람.
- 5 사철,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철.
- 7 한데에 수북이 쌓아 둔 곡식 더미.

- 1 있는 정성을 다하여, 또는 정성이 미치는 데까지.
- 2 아무 까닭이 없이 트집을 잡음, 또는 그 트집.
- 3 키를 위아래로 흔들어 곡식의 티나 검불 따위를 날려 버리다.
- 6 절구에 곡식 따위를 넣고 빻거나 짚는 일.
- 8 법씨를 뿌리어 모를 기르는 곳.